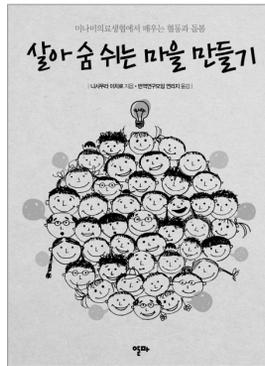


의료생협, 더 나은 의료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대안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알마, 2013)

이민주*



1. 들어가며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한동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맞는 사람 다섯 명이면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많은 매체를 통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기도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minju2407@gmail.com)

협동조합은 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조직일까?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한다. 즉, 조합원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원하는 비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운영방식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를 느끼는 영역들이 다양한 것처럼, 협동조합에서 영위하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 복지, 육아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부터 교육, 문화예술, 종교, 주택,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수의 협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등 조합원들의 구성도 다양하다.

앞서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하는 책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가 바로 일본의 한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50년 전 작은 진료소에서 시작한 미나미의료생협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어떠한 활동을 펼쳐왔고 어떻게 마을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바꾸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50년의 미나미의료생협의 활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2.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나미의료생협

미나미의료생협은 아이치 현 남부의 나고야 시의 미나미 구를 중심으로 도카이 시, 지타 시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미나미의료생협은 40개의 사업소¹⁾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1) 의료사업 9개(병원 2, 진료소 5, 치과 진료소 2), 돌봄·복지사업 20개(재택돌봄 지원사업소 1, 방문 간호 스테이션 4, 헬퍼 스테이션 6, 데이케어 서비스 2, 소

6만 3,000여 명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하루에 미나미의료생협을 방문하는 환자 수는 1,300여 명에 달한다.

1961년에 3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생협을 설립하고 미나미진료소를 연 것이 미나미의료생협의 시초이다. 이후 조합원과 지역의 요구에 따라 병에 굴복하지 않는 지역 만들기, 공해 의료, 건강검진, 피폭자 의료, 장애 아동 의료, 사회보장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합원과 사업소를 늘려왔다.

아이치 현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미나미의료생협에서 제공하는 의료, 돌봄·복지 서비스, 건강 상담, 육아 지원 등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반 모임과 건강 축제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미나미의료생협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택 환자 돌봄, 데이케어 및 입소자 생활 지원, 육아 지원, 병원 내 도서실, 카페 등 각종 시설에서의 지원 활동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지원 활동으로부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3. 책 들춰보기: 미나미의료생협이 펼쳐온 각종 활동들

미나미의료생협은 의료, 보건, 복지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개선까지 그 활동의 대상으로 한다. 이 책에서는 1) 의료, 2) 돌봄과 복지, 3) 건강한 몸 만들기, 4) 지역 만들기, 5) 생협 만들기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미나미의료생협이 전개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의료’를 주제로, 미나미의료생협의 완화케어와 장애인 의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미나미생협병원의 완화케어 병동에는

의술로는 더 이상 치료가 힘든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쓸쓸하게 마지막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완화케어 병동에서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환자 스스로 원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장애인 재활 치료는 ‘환자의 노동과 생활에 도움을 주어 삶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가 있어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돕되,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환자 개인의 성장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돌봄과 복지’를 주제로 두 개의 돌봄시설(기마마텐구원, 그룹 홈 나모)을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과 보살핌이 필요한 고령자의 증가로 돌봄 복지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미나미의료생협에서는 기마마텐구원을 비롯한 여러 돌봄시설이 모인 생협 유유마을을 조성했다. 마을의 병원, 돌봄사업소, 마을 주민 자치 조직, 자원봉사자 등 마을의 각 주체들이 협동하여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다. 환자를 단지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세 번째 장은 ‘건강한 몸 만들기’라는 주제로, 미나미의료생협에서 전개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나미의료생협의 피트니스클럽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과 같은 기구로 운동한다. 다만 속도나 중량을 개인에게 맞게 설정하고,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은 자율적으로 걷기 모임이나 지압 모임 등을 결성하여 건강을 주제로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네 번째 장 ‘지역 만들기’에서는 생협 논비리 마을을 소개하고, 미나미의료생협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펼쳐온 여러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 사업 중에는 고령자이거나 환자이기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돕는 사업이나 거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의 사업들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고통자나 환자이더라도 가능하다면 이동 서비스를 위한 운전을 하거나 간단한 일들을 하여 서로 돕는다.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각 개인이 협동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미나미의료생협의 조직과 경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미나미의료생협은 협동, 열정, 신념을 기본 정신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지역을 가장 중시하는 선택을 하되, 이는 조합원들의 철저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조직 풍토 만들기와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류의 장과 교육체계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4. ‘협동’: 미나미의료생협의 기본 정신

미나미의료생협의 활동을 소개하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협동’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들 역시 협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다. 하지만 공동이 추구하는 요구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기도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 갈등하기도 하고, 이를 실제로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우리 스스로 꽤 쉽게 협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음을 자주 경험하기에, 미나미의료생협의 사람들이 실천해온 협동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미나미의료생협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구도, 어떠한 의견도 배제하지 않는 철저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 조합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나는 그저 봉사를 제공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위로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 “내가 지금은 자원봉사자이지만 나이가 들어 나중에는 생협의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은 결국 내 스스로를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수고로움 혹은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모두의 협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고령자나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더라도, 조리나 청소와 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기도 하고, 작은 일이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돕기도 한다. 미나미의료생협이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협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5. 나가면서: 의료생협, 더 나은 의료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대안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단계에 진입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도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지역 및 계층 간의 건강 불평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의 불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고용, 문화,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건강수준의 격차도 날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²⁾ 게다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까지 시행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2) 임종한 외, 『가장 인간적인 의료』(스토리플래너, 2011).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금전을 목적으로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등 비인간적인 의료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건강과 의료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급속한 노령화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 등 건강과 관련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도모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료생협은 더 나은 의료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의료생협은 의료인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따뜻하고 인간적인 의료를 지향한다. 또한 의료생협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마을을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어왔음을, 우리는 미나마의료생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우리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는 개개인의 노력과 협동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나마의료생협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